



프로야구 개막 D-3
8개 구단 감독 출사표



삼성 류중일

부상 선수 없이 캠프 잘 마치고 돌아왔다. 목표는 우승이지만 올해는 예측하기 힘들다. 우리를 1강으로 꼽는 분들이 많지만 8강8약이라 생각한다.



SK 이만수

야구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팬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팀이 되겠다. 올 시즌은 8강 중이 될 것이다. 삼성이 아닌 우리가 우승할 것이다.



롯데 양승호

캠프에서 준비 잘했다. 작년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졌는데 올해는 부산팬들에게 큰 기쁨 드리겠다. 개인적으로 삼성과 KIA가 우승 후보라 본다.



두산 김진욱

최강 두산 팬들이 최강이라 생각한다. 팬들이 1등이듯이 우리도 1등 꼭 하겠다. 삼성이 유력한 우승 후보다. 8강8약이라 생각한다.



LG 김기태

시즌 끝나고 우리 팀에 많은 일이 있었다.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한화 한대화

2년 동안 최하위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 했다. 덕분에 작년 6위였다. 올해는 김태균, 박찬호가 왔기 때문에 4강을 거쳐 우승을 목표로 하겠다.



넥센 김시진

올 시즌 스프링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부상 없이 준비 잘했다. 이택근, 김병현이 합류해 어느 해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KIA 선동열감독

“SUN 파워 보여준다”

“700만 관중 중심에 KIA가 우뚝 서겠다”

2012프로야구 미디어데이
삼성·KIA ‘2강 체제’ 전망

“700만 관중 중심에 KIA가 우뚝 서겠다.”

3일 서울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에서 2012 팔도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Let’s Play Ball with Fans!’ 행사가 열렸다.

고향으로 돌아온 KIA 타이거즈 선동열 감독은 “지난해 프로야구에 680만 관중이 왔다. 올해는 700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KIA가 우뚝 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경기장에 많이 와서 응원해달라”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서 ‘디펜딩 챔피언’ 삼성이 단연 우승후보로 꼽혔다.

올 시즌 프로야구 판도를 1강7중으로 꼽은 선 감독은 “1강은 삼성이다. 삼성은 투수진이 안정됐고, 이승엽이 돌아왔다. 부상이 적은 팀들이 4강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선동열 감독을 비롯해 롯데 양승호 감독, LG 김기태 감독, 넥센 김시진 감독이 삼성의 질주를 예고했다.

우승후보로 주목 받은 삼성의 류중일 감독도 “목표는 우승이다”며 “올해는 부상선수 없이 스프링캠프를 잘 마무리 하고 왔다. 올 시즌 예측하기가 힘들다. 8강8약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부상 선수가 없는 팀이 4강에 갈 것이다”고 말했다.

새 사령탑을 앞세워 2012시즌을 맞는 KIA도 강팀으로 분류됐다.

3강5중이라 언급한 한화 한대화 감독은 삼성·SK·KIA를 3강으로 꼽았고, 롯데 양승호 감독도 삼성과 KIA 2강 체제를 예상했

다. 미디어데이를 통해서 2012시즌 출사표를 던진 8개팀 사령탑들은 오는 7일 우승을 향한 그라운드 열전에 돌입한다.

명가재건에 나선 KIA는 7일 문학구장을 찾아 SK를 상대로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개막이 임박하면서 KIA는 ‘시즌 모드’로 전환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KIA 선수단은 3일 첫 야간훈련을 실시했다. 오후 1시 시작된 시범경기 일정에 맞춰진 생체 리듬을 본 경기에 맞추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4일에는 조명탑을 켜고 야간 경기를 실시한다. 선수단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리는 자책 청백전을 통해 야간경기 적응에 나선다.

4일 경기를 통해 개막전 엔트리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코칭스태프 경험 많아 유리”

윤석민 우승 각오

KIA 윤석민이 꼽은 2012시즌 호랑이 군단의 저력은 ‘코칭스태프의 경험’이었다.

KIA 타이거즈 윤석민이 3일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박리거 한화 박찬호, 넥센 김병현 등과 함께 팀 선수대표로 자리를 했다.

윤석민은 “KIA가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성적이 안 나와서 팬들에게 죄송하다. 지난해보다 부상당한 선수들이 많이 돌아왔고 나는 안 좋지만 다른 투수들이 많이 좋아진만큼 올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올 시즌 출사표를 던졌다.

윤석민은 또 KIA의 ‘경험’을 우승 원동력으로 꼽았다.

각 팀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윤석민은 “KIA가 유일하게 프로야구에서 10번 우승을 한 팀이다”며 “아직 선수들의 우승 경험은 적지만 감독님과 코치님들은 경험이 많다. 많이 배우겠다”고 밝혔다.

윤석민이 언급한 것처럼 선동열 감독은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은 11시즌 동안 6차례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선 감독은 이후 삼성 사령탑으로 재임하면서 두 차례 더 우승 반지를 끼는 등 우승 경험이 풍부하다.

이순철 수석코치도 타이거즈의 주축 선수로 8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린 ‘우승 베테랑’이다.

윤석민은 지난 2009년 처음 우승의 순간을 만끽했지만 로페즈의 그늘에 가려져 조연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투수 4관왕과 MVP 등을 거머쥐며 야구 인생 최



기아 윤석민이 3일 ‘2012 프로야구 미디어데이’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방송

고의 한해를 보냈지만 우승팀 에이스라는 타이틀은 얻지 못했다.

타이거즈 왕조의 주역들이 다시 모인 2012시즌 윤석민이 언급한 ‘경험’이 KIA의 우승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